

# APEC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金 龍 俊\*

## I. 序 論

지난해 11월 19일, 20일 양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CE)」 회원국의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APCE 지도자회의」를 계기로 최근 APEC과 아·태 경제협력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89년 호주 캔버라 회의에서 창설된 APEC은 그동안 5회의 각료회의를 거치면서 회원국 확대와 사무국 설치 등으로 아·태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경제협력기구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금번 시애틀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와 「지도자회의」를 계기로 무역·투자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물론, 중단 기적으로는 아·태 경제공동체의 형성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APEC회원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통상전략적 차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APEC의 창설초기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여, 그 발전과정을 주도해 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APEC을 중심으로 하여

아·태 경제의 특징과 우리와의 관계, 아·태 경제협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APEC에서의 우리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亞·太 經濟의 특징과 우리와의 관계

### 1. 아·태 경제의 특징

#### (1) 다양성

아·태지역은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3개 대륙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으로 소득분포, 문화적 배경, 사용 언어 등에서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1인당 GNP 기준으로 볼때 이 지역은 일본, 캐나다, 미국 등 2만달러 이상인 국가에서부터 1천달러 이하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 이르기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문화적으로 서양의 기독교문화권 국가, 동양의 유교문화권 국가, 남방문화권 국가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정치체제와 사용 언어면에서도 매우 큰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 〈APEC 회원국의 다양성 현황〉

- 소득수준(1인당 GNP 기준)
- 2만달러 이상(3개국) : 일본, 캐나다, 미국

\*經濟企劃院 對外經濟調整室 協力政策課 事務官

- 1만달러~2만달러(5개국) :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 5천달러~1만달러(2개국) : 한국, 대만
- 1천달러~5천달러(2개국) : 말레이시아, 태국
- 1천달러 이하(3개국) :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 문화권
  - 서양의 기독교문화권(4개국)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동양의 유교문화권(6개국) :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 남방문화권(5개국)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 정치체제
  - 의회민주주의제(9개국)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입헌군주제(4개국) :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사회주의(1개국) : 중국
  - 기타(1개국) : 홍콩
- 언어
  - 영어권(8개국)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 중국어권(5개국) :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기타 : 일어권, 한국어권, 인도네시아어권, 태국어권

(2) 고도경제성장

아·태지역은 8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의 평균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APEC 회원국의 '85~'90년간 평균경제성장률은 3.9%로 세계 전체의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APEC 회원국중 미국, 캐나다 등을 제외한 동아시아국가와 아세안국가의 '85~'90년간 평균경제성장률은 6.1%로 세계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하는 높은 성장을 보여왔다. 그 결과 아·태지역은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91년을

기준으로 할때 아·태지역은 세계 GNP의 48%, 세계 교역량의 40%를 점하고 있다.

아·태지역이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것은 높은 교육수준, 풍부한 자원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내국가들이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고 대외지향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하여 왔고, GATT를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 자유교역질서가 이들 국가의 대외지향전략을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태지역의 이러한 고도성장은 21세기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 경우 아·태지역은 명실상부한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고, 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주요 경제권역별 경제규모 비교

구분 \ 권역		ASEAN	NAFTA	APEC	EC	EEA	세계 전체
인구('93)	규모(100만명)	314	357	1,913	345	377	5,293
	비중(%)	5.9	6.7	36.2	6.5	7.1	100
면적('93)	규모(1,000km <sup>2</sup> )	3,048	21,743	40,892	2,368	6,769	136,255
	비중(%)	2.2	15.9	30	1.7	4.9	100
GNP('90)	규모(억달러)	2,691	63,360	105,522	59,778	68,159	218,631
	비중(%)	1.2	28.9	48.3	27.4	31.2	100
경제성장률	'92년(%)	N.A	2.0	2.4	1.1	N.A	1.1
	'85~'90년(%)	N.A	2.8	3.9	3.1	N.A	3.2
교역('92)	규모(억달러)	3,775	13,708	29,947	30,468	35,086	69,440
	비중(%)	5.4	19.7	43.1	43.8	50.5	100

자료 : 통계청 해외경제자료, KOTRA 국별자료, Eurostat, IFS, 일본 경제기획청 해외경제 데이터, WEFA('93. 8), DRI('93. 3/4), OECD('93. 7), IMF('93. 9)

(3) 높은 상호의존도

아·태지역 국가들의 고도성장과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은 역내국가간에 제도적인 경제통합이 없이도 높은 상호의존도를 가져왔고, 그 결과 APEC 회원국의 교역·투자면에서의 상호의존도는 제도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EC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APEC은 이미 실질적

인 측면에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APEC 및 EC의 역내 경제의존도

	APEC		EC	
	'80	'91	'80	'91
역내교역의존도	53.4	65.6	56.4	63.0
역내투자의존도	34.0	45.6	N.A	27.8

2. 우리 경제와 아·태지역 경제의 관계

교역, 투자, 기술, 관광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아·태지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68%가 아·태지역으로 향하고 있으며, 해외 직접투자는 87%, 기술도입은 77% 등이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관광객의 83%가 아·태지역에서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아·태지역의 높은 경제성장세에 비추어 우리 경제와의 상호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따라서 아·태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는 향후 우리 경제의 발전에 關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우리 경제의 아·태지역과 경제교류현황

구분	대아·태(A)	세계(B)	A/B	비고	
무역(억달러)	수출	519	766	68%	'92년 기준
	수입	558	818	68%	〃
직접투자(억달러)	진출	43	49	87%	'93. 6 참고기준
	도입	78	105	74%	'93. 4 참고기준
기술교류(100만달러)	수출	53	182	29%	'92 참고기준
	도입	5,543	6,960	77%	〃
관광교류(1,000명)	출국	1,391	2,043	68%	'92년 기준
	입국	2,420	3,231	83%	〃

III. 亞·太 經濟協力體(APEC)의 발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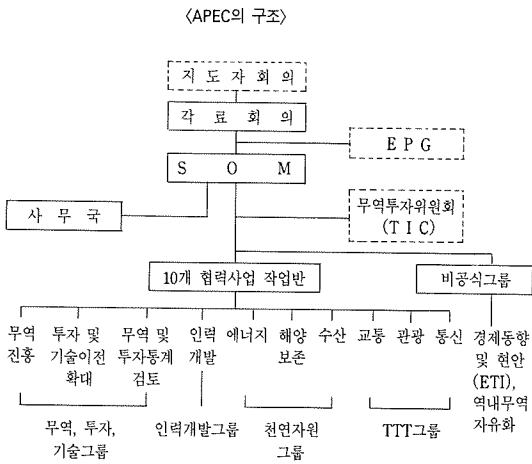
'80년 중반 이후 EC통합 추진, 미국·캐

나다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등 域外地域主義에 대응하고, 역내국간에 심화되어온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국가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 모인 아·태 12개국의 외무·통상장관은 APEC을 출범시키고 다양성과 개방성의 추구, 회원국간 합의 존중, 비공식 협의에 기초한 협력 등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 이후 1991년 7월 서울각료회의에서 중국, 대만, 홍콩 등 3중국이 신규로 가입하였고, 1993년 11월 제5차 각료회의에서 멕시코, 파푸아뉴기니아가 가입하였으며, 1994년에 추가적으로 칠레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17개 국가로 구성된 APEC은 아·태지역의 주요 국가를 망라하는 가장 주목받는 경제협력기구로 부상하였다. 1992년 9월 방콕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APEC 사무국이 설치되었으며, 매년 200만달러 규모의 기금출연에도 합의하여 APEC은 경제협력체로서의 구체적 모습을 갖추었다.

APEC은 매년 1회씩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그 산하에 「고위실무자회의」(SOM)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역내지역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무역진흥, 투자 및 기술이전 확대, 무역 및 투자 데이터 검토, 인력개발, 에너지, 해양보존, 수산, 교통, 관광, 통신 등 10개 협력사업 작업반(Working Group)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외에 역내 무역자유화와 거시경제동향과 전망을 담당하는 비공식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1992년 10월 방콕에서 개최된 제4차 APEC 각료회의에서는 공식적인 APEC 기구와는 별도로 2000년을 향한 APEC의 장기적인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한시적인 APEC 자문기구로서 각국의 전직각료, 대학교수 등 저



\*10개 협력사업 작업반(Working Group)은 4개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

명인사들로 구성된 「저명인사그룹」(EPG)을 설치하였는바, 동 EPG그룹은 3차례의 회의를 거쳐 「APEC의 비전-아·태 경제공동체의 지향」이란 내용의 토의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5차 각료회의에 보고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APEC의 궁극적 협력목표를 세계 무역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는 아·태 무역자유화에 두고, 이를 위한 광범위한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사무국의 기능확충 등 APEC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담고 있다.

〈EPG 보고서의 주요 건의내용〉

- 아·태 무역자유화를 궁극적 협력목표로 설정
- 역내 무역자유화의 토대가 되는 세계 무역자유화를 지원
  - 연내 UR의 성공적 타결에 노력하고, 연말까지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APEC회원국이 추가적인 양허안을 제시
  - 차기 세계 무역협상을 1995년말 이전 출범시킬 것을 UR 최종협정문에 포함 추진
- 역내 무역자유화는 세계 무역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서 GATT원칙에 부합하게 추

진

- 역내 무역자유화 달성시점과 중간일정에 대해서는 96년중 합의
- 자유화 선행조치로 광범위한 무역촉진 프로그램의 즉각적 실시
  - 아·태 투자협정, 분쟁해결절차, 거시경제 정책 협의, 경쟁정책, 기술표준의 조화 및 상호 인정, 환경보존, 원산지규정
- 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인적·물적 사회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지원
- APEC의 제도적 발전
  - 정상회의의 3년에 1회 정례개최, 경제정책 담당 각료회의의 활성화, 효율적인 의사결정체제 구축, 사무국 요원의 전문화와 사무총장의 각료급으로 격상 등을 통한 사무국 기능 확충

APEC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등장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바, 미국은 APEC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실질적인 무역자유화 및 투자협력을 추진하고 APEC의 위상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3년 11월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에서 미국 주도로 「APEC 무역투자 기본선언」(Declaration on APEC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이 채택되고, 역내 무역·투자자유화의 협상기구인 「무역·투자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우리나라가 동 위원회의 초대 의장국을 맡게 되었으며, 1994년 1월 인도네시아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경제현안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조율, 무역·투자장벽 제거 완화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은 각료회의 이후 각국 정상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APEC 지도자 경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 지도자 회의에는 정치적 이유로 각료가 대신 참석한 대만, 홍콩과 미국 주도의 APEC 강화에 반발해온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APEC 회원국의 정상이 모두 참석하여 「아·태지역의

비전], 「아·태 경제협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방안」 등의 의제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분위기 속에서 매우 자유롭게 격의없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APEC 지도자 경제회의의 종료후 각국 정상들은 협상종료시한을 3년이나 연장하고 있는 UR 협상의 금년내 타결을 지원하여 GATT 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아·태 경제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하는 “APEC 지도자 경제비전 성명”을 발표하였다.

APEC은 이제 「무역·투자 기본선언의 채택」과 「지도자 경제회의」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1994년부터는 「무역·투자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회원국간에 합의된 동 위원회의 1994년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무역·투자 활성화방안과 역내 투자자유화 추진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갈 예정이다.

- ③ 투자; 투자증진방안 검토
- ④ 표준·조화; 국제기준에 부합한 표준제도 및 상호 인증 확대
- ⑤ UR; UR 협상 결과 검토 및 이행촉진방안 검토
- ⑥ 중소기업협력
- ⑦ 관세통계망 구축
- ⑧ 시장접근 관련 행정규제; UR 결과를 토대로 규제완화방안 검토
- ⑨ 저명인사그룹(EPG) 건의사항 검토

#### IV. APEC에 대한 각국의 입장

미국의 경우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태 경제협력과 APEC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즉, 아·태지역은 고도경제성장지역일뿐만 아니라 미국과 경제적 연관성이 점차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자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증대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미국의 대아시아 교역규모는 1992년을 기준으로 볼때 3,450억달러로서 대유럽 교역규모 2,770억달러의 1.5배에 이르며, APEC 회원국에 대한 직접투자규모는 1,450억달러로서 미국의 전체 해외투자액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으로 EC에 대한 견제력을 확보하고, UR협상의 성과가 미흡할 경우 아·태지역에서 보완적인 자유화협상을 전개할 의도를 갖고 있으며,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일본의 영향력 확장과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발판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배경으로 1993년 7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방일, 방한시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을 발표하였는바, 이 구상은

#### 〈무역·투자 기본선언 및 1994년도 작업과제의 주요내용〉

- 협력원칙
  - 개방적 지역주의와 시장주도의 상호의존성 증진
  - GATT 원칙에 부합
  - 공개대화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 회원국의 다양성과 개도국에 대한 적절한 배려
- 무역·투자위원회(TIC; Trade and Investment Committee)
  - 구 성; 회원국의 무역·경제정책담당자로 구성
  - 목 적
    - 국제경제현안에 대한 공동보조
    - 역내 무역·투자장벽 제거·완화를 위한 협의, 합의 모색
- 1994년도 무역·투자위원회의 작업과제(잠정안)
  - ① 무역정책 대화; 다자간 교역체제, 지역주의 동향 검토
  - ② 통관 협력; 통관절차 간소화, 조화

경제면에서는 무역·투자자유화를, 안보면에서는 다자간 안보대화를 두개의 축으로 삼아 자유, 경제적 번영, 평화가 실현되는 태평양 공동체의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은 APEC을 자국의 주요 경제협력 대상지역인 아시아와 북미지역간의 경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EC, NAFTA 등 역외 지역 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우선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APEC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해에 편중된 협력구도가 설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며, 따라서 일본은 「개방경제연합」(Open Economic Association)을 표방하면서 조속한 자유화 추진보다는 아·태지역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가능한 협력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경제협력의 단계를 높여가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캐나다 및 호주의 경우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있어서 미국과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나, 특히 미국 등 역내 강대국의 일방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의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 있다. 이들 국가는 역내에서 中間者(Middle Power)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이해조정을 통하여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세안 6개국의 경우 APEC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ASEAN의 위상약화를 우려하여 APEC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의 급속한 진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EAEC에 집념을 보이면서 미국 주도의 APEC 강화 움직임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때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능적 협력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산업발전단계와 개방화 수준이 낮다는 이

유로 무역·투자자유화에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GATT에 가입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국제경제무역의 진출의 장으로서 APEC의 유용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APEC을 통하여 자국의 개방, 개혁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수출시장의 확보, 자본과 기술도입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ASEAN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취약한 산업경쟁력을 감안하여 아·태지역에서 급속한 무역·투자자유화를 추진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APEC이 너무 급속히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로 발전하는 데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V. APEC의 발전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의 대외지향전략을 채택하여 왔으며, 우리의 이러한 전략은 GATT를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 자유교역질서에 힘입어 성공적인 고도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대외개방적 발전전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대외통상 및 국제시장기반의 확충」 분야에 잘 반영되어 있다.

대외개방적 발전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교류를 보장해주는 다자간 통상질서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우리의 국제통상협력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교역질서 모색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통상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적 차원의 협력 논의에도 참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지역협력의 목표를 범세계적 교역질서의 구축과 대외개방성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협

력의 추구에 두면서 앞으로 다자간 교역질서의 위축으로 지역협력이 더욱 보편화될 경우에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는 APEC을 중심으로 한 아·태 경제협력을 통하여 범세계적 자유무역체제의 정착·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주의의 배타적 불럭화를 견제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유리한 국제경제질서 형성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나아가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역내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교역·투자진출기회를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경제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촉진하고 역내에서 중간자적인 위치를 활용하여 우리의 국제적 발언권을 극대화하며, 역내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지원하고 남북통일에 우호적인 국제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서 우선 앞으로 본격화될 전향적인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UR 협상 이후 APEC에서 논의될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시작과 UR 협상에서 미진한 분야와 환경, 경제정책 등 신규분야를 중심으로 APEC 차원에서 본격화될 자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는 한편, APEC을 통하여 NAFTA, AFTA 등 역내 소지역 경제블럭들이 역외국에게 배타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견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PEC의 무역·투자자유화에 있어서는 GATT 원칙에 부합하고 역외 개방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APEC이 또 하나의 경제블럭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계의 교역자유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역내 중간자적 입장을 십분 활용하여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APEC내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발전수준이나 개방계획에 맞는 국제화·개방화가 진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태 경제공동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EC형, OECD형 등 기존 국가기구의 협력모델,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구상(PAFTA), 일본의 개방경제연합 구상(OEA) 등을 참고로 하여 개방적 지역주의와 GATT원칙에 부합이라는 일반적 원칙과 아·태지역의 독특한 현실에 맞는 고유한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APEC이 발전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표 4〉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인구('93) (100만명)	면적('93) (1,000km <sup>2</sup> )	GNP('90) (억달러)	1인당 GNP ('90,달러)	수출('92) (억달러)	수입('92) (억달러)
미 국	254	9,809	55,138	22,058	4,482	5,540
일 본	124	378	29,898	24,213	3,339	2,232
캐 나 다	27	9,976	5,724	20,872	1,341	1,292
중 국	1,189	9,597	3,698	377	805	764
한 국	44	99	2,340	5,562	766	818
호 주	18	7,713	2,823	16,516	425	437
대 만	20	36	1,618	7,509	814	722
뉴 질 랜드	4	271	417	12,896	100	86
인도네시아	195	1,905	1,025	572	293	273
홍 콩	6	1	701	12,578	986	1,234
태 국	58	513	794	1,387	325	407
필 리 핀	624	300	440	715	98	155
싱 가 포 르	3	0.6	346	11,714	635	722
말레이시아	19	330	407	2,279	407	399
부 르 나 이	0.3	0.06	41	16,054	43	18
APEC (A)	1,913	40,892	105,522	5,516 <sup>1)</sup>	14,858	15,089
세계전체 (B)	5,292	136,255	218,631	4,131 <sup>1)</sup>	33,840	35,600
A/B (%)	36.2	30	48.3	133.5	43.9	42.4

주 : 1) 1인당 평균임.

자료 : 통계청 해외경제지표, KOTRA 국별자료, Eurostat, IFS, 일본 경제기획청 해외경제 데이터